개회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 성평등 포럼이 열리게 되어 무척 뜻깊습니다.

귀한 토론회를 알차게 준비해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까지 먼 길 와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주도는 2018년 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성평등 정책관 직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제주도정의 모든 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도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조직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2년간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녹록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성평등이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성폭력과 성차별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지를 보여줍니다.

차별이 없고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민주사회입니다.

제주도정은 사회 전반의 성차별 구조와 문화를 해소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배려하는 사회, 성평등한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전문가 여러분의 정책 제언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제주의 노력에 여러분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회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민 무 숙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민무숙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성평등포럼에 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 못 오시고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올해는 성평등 정책에 있어서 국제사회와 우리 제주지역에 뜻 깊은 한 해입니다. 먼저,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북경행동강령이 채택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날 국제사회 성평등 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은 '성 주류화' 정책이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도 바로 북경행동강령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이 설립된 지 2주년이 됩니다. 범부서적 성격의 성평등정책관 조직의 신설은 북경행동강령에서 권고한 성 주류화 정책을 도가 강력히 이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설립 2주년을

축하드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정책관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국제 성평등 이슈에 따른 제주 성평등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 입니다. 국제적 관점에서 성평등 이슈를 짚어보는 것은 매우 뜻깊습니다.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문제들 앞에서 성평등을 향한 세계 국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제주에서도 여러 주체가 함께 한 그동안의 노력들을 격려하고 더 연대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편의 주제발표와 토론들을 통해서 나누게 되겠지만 성평등의 여정은 끝나지 않은 길이고, 교육, 노동, 인권, 폭력, 공공과 민간부문의 여성 대표성과 성평등 의제의 제도화 등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포럼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제주의 성평등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개원한지 올해로 6년째가 되는데, 오늘 성평등 정책관과 같이 포럼을 준비하게 되어 기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성평등 제주사회 실현” 이라는 제주사회로부터 받은 미션을 다시 한 번 각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 개발과 지역사회 협력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포럼에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 사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양 영 식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성평등 정책이 성장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2020 성평등[젠더] 포럼”이 개최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젠더 정책의 방향 모색을 위해 포럼을 개최해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과 오늘 포럼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성평등 정책은 다름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철폐하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성평등 이슈에 따른 지역 성평등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펼쳐지는 오늘의 포럼에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우리지역 젠더정책을 짚어보고, 제주성평등정책관 2년의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평등 관련 국제규범이행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세부사업들이 견고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지역의 성평등 정책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과제를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은, 발전적인 제주 성평등 정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이 제주 성평등 정책의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하신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제주 성평등 포럼 운영 개요

◈ 조직 신설 2주년을 맞아 성평등 관련 국제규범이행을 위한 지역차원의 성평등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 '제주성평등정책관 2년' 성과 공유를 통해 향후 성평등 정책 발전방안 마련

▢ 포럼개요

○ 일　　시 : 2020. 8. 28.(금) 14:00 ~ 16:30

○ 장　　소 : 제주 인권교육센터 2층 (제주시 중앙로 273 나라키움 2층)

○ 주　　제 : **"국제 성평등 이슈에 따른 지역 성평등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여성가족연구원

○ 후　　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운영방식 :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 방송(유튜브, 페이스북 활용)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myDLPFXEG_I2Xgaape/NrQ)
- 제주도청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appyjejudo)

※ 방청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제한

▢ 세부진행

시간	진행내용
14:00~14:20	개회식
14:20~14:50	**발표 1. 성 주류화 추진 체계구축 2주년 성과와 향후과제** **이현숙**(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발표 2.북경행동강령 선언 25주년, 제주지역 성과와 과제** **고지영**(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
(14:50~15:10)	휴식시간
15:10~15:40	**좌 장　민무숙**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토론1. 장윤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2. 염미경**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토론3. 이경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토론4. 김경희** (대전광역시 성인지정책담당관) **토론5. 고은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
15:40~16:30	종합토론 및 폐회

Contents

발표 1

❑ 성 주류화 추진 체계구축 2주년 성과와 향후과제 ····· 3
이 현 숙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발표 2

❑ 북경행동강령 선언 25주년, 제주지역 성과와 과제 ····· 17
고 지 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

토 론

❑ 토 론 ····· 33
좌 장 민무숙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토론1. 장윤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2. 염미경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토론3. 이경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토론4. 김경희 (대전광역시 성인지정책담당관)
토론5. 고은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

◈ 발표 1 ◈

2020년 성평등 포럼

성 주류화 추진 체계구축 2주년 성과와 향후과제

이 현 숙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목차

Ⅰ 성평등정책관 이전과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1. 정책 추진체계의 변화
2. 성평등 거버넌스의 변화
3. 성인지 제도의 변화
4.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변화
5. 성평등 교육시스템의 변화
6. 성평등 문화 확산사업의 변화
7. 마을과 사람의 변화
8. 성평등한 미디어 그리고 언어의 변화

Ⅱ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추진 상황

Ⅲ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상황

Ⅳ 코로나19, 이후 앞으로 더 무엇을?

Ⅴ 앞으로 더 무엇을?

Ⅰ 성평등정책관 이전 과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조직 신설 전

정책실행을 위한 추진체계 미흡으로
성인지 정책 및 문화 확산에 대한
도민 체감도 수준 낮음

조직 신설 후

도정 전반 영역에 성평등 관점 확산을 위한
정책 실행기반 구축으로
성 주류화 정책 강화 및
지역 사회 성평등 문화확산

Ⅰ 성평등정책관 이전 과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1 정책 추진체계의 변화

전국 지자체 최초 행정부지사 직속 성 주류화 정책 추진을 위한 「성평등정책관」 신설 2018.8.

→ 정부 및 전국 지자체 성평등 전담부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

-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 (여성가족부)에서 우수사례로 소개
- 정부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직제안 확정 2019.4.30.
- 타 지자체에서 우수사례 소개 및 벤치마킹: 부산, 강원, 대전, 충북 등

'성평등 추진 체계의 변화' 포럼 공동 개최 2019.10.16.



도정 전반 성인지 정책 실행력 담보를 위한 추진 체계 구축

양성평등책임관(기획조정실장)
∨
운영총괄(성평등정책관)
∨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 및 담당

부서별 성평등 목표 수립 추진 중
(162개 부서별 성인지 정책 추진 관리)

Ⅰ 성평등정책관 이전 과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2 성평등 거버넌스의 변화 – 양성평등 위원회 실효성 강화

도민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수립· 시행을 사전 심의· 조정	•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더 제주처럼' 기본계획 심의· 조정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3명) 분야별 분과위원회 참여. 자문 • 주요 정책 수시 자문 및 소통 채널로 실무위원회 운영 • 실무위원회 :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간사 등 10명 • '더 제주처럼' 기본계획(안) 검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기본방향 자문 등
도정 전반 성인지 정책 실행력 담보를 위한 추진 체계 구축	• 정책권고 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 및 검토, 정책권고제 운영방안 마련 • 정책권고제 실시('19.12) → 2020년도 교육과정 중 편성 운영 중 * (사업명) 도민 대상 교육사업내 성평등 및 폭력예방 교육 반영 (추진부서) : 도 일자리과, 노인장수복지과 등 7개 부서

Ⅰ 성평등정책관 이전 과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2 성평등 거버넌스의 변화 – 제주성평등협의회 구성 운영

지역 공공기관, 언론 등이 참여하는 성평등정책 협력체계 구축	• 교육청, 대학, 경찰, 언론, 공공기관 등 24개 기관 참여
성평등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19.1.28.	• 지역에서의 성평등 협력과 정책 발전 방안 논의
성평등협의회 발족 및 제1 차 정기회의 개최 '19.3.19.	• (구성) 24개 기관 / (기관대표) 각 기관의 소관업무 부서장 • (주요내용) 성평등정책 기관별 추진상황 공유 및 정책 이해의 장 마련
2019 성평등 포럼(2회 운영)	• 소울과 재즈가 흐르는 젠더 콘서트 • 지방자치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변화
2020 성평등 포럼(2회 추진중)	• 찾아가는 성평등 포럼 추진계획 수립 • 2020 성평등 포럼 '20.8.28. 찾아가는 성평등 포럼 운영 '20.9월

Ⅰ 성평등정책관 이전과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2 성평등 거버넌스의 변화 – 제주청년성평등네트워크

- 2030 청년 참여를 통한 세대 갈등 개선
- 제주 성평등 청년네트워크 사업 발굴 및 선정 '19.4월
-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SNS 채널 운영 '19.5~11
- 찾아가는 성평등 청년 네트워킹 '19.5~6월(5회) / 도내 청년 그룹
- 제주청년 성평등 정책 아카데미 운영 '19.7월 / 성평등 강좌(2회)
- 2020년 제주청년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선정
- 제주 청(소)년, 성평등한 우리동네 만들기사업 본격 추진/(사)제주여민회 20. 7.25



Ⅰ 성평등정책관 이전과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3 성평등 제도의 변화 – 주요 정책 사전 성평등 검토제 시행

주요정책 및 사업추진 시작 단계에서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 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도민 성평등 실현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 『더 제주처럼』 도정방침, '19. 1월)	추진절차	• 계획담당자 '성인지 관점' 사전 검토 : '혐치 및 미래비전 이행 여부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 내 항목을 활용하여 계획 결재 문서 기안 시 점검 • 필요시 전문가 '성인지 관점' 검토 : 계획담당자 사전 검토 중 전문가 검토 및 분석 요청 시 '성인지 관점' 컨설팅 실시
대상분야	행정 전 분야		
대상사업	실국장 이상 정책(사업) 계획 결재 문서		
검토방식	계획 결재 문서 기안 시 '사전 검토 항목' 체크리스트 검토		

Ⅰ 성평등정책관 이전 과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3 성평등 제도의 변화 – 성별영향평가 확대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발굴 및 정책개선 이행 점검 강화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컨설팅 강화, 정책개선 이행점검 지속 실시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확대
(2018) 도 및 행정시 (2019) 지방공기업 3개소 (2020) 출자출연기관 16개소

축제 및 홍보물 등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처음 실시
*특정성별영향평가: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정책을 대상으로 특정평가

Ⅰ 성평등정책관 이전 과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4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변화

성희롱·성폭력 없는 직장 만들기 추진

-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시스템 마련
- 공공 유관단체 등 사건 처리 지원 및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등 '19.11월
- 고위공직자·공기업 기관장 대상 성평등한 조직문화 워크숍 '20.8월



'19.3월	'19.11월	'20.3월	'20.7월	'20.6~7월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성희롱·성폭력 없는 직장 만들기 홍보물(카드뉴스, 리플릿) 제작·배포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개정	찾아가는 고충상담창구 운영

Ⅰ 성평등정책관 이전 과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5 성평등 교육시스템의 변화

성평등 제주 실현을 위한 도민 교육

- 찾아가는 여성 폭력 예방 교육
-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

제주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의 허브 역할을 수행 할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운영 추진



'19.1.14./5.3.	'19.8.21.	'19.9.16.	20.6월	20.6.26.
교육센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자문	교육센터 설치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운영 계획 수립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개설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사업 협약체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Ⅰ 성평등정책관 이전 과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6 성평등한 문화확산 사업의 변화

양성평등기금 지원 확대를 통한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도모

[양성평등 기금 지원 확대]



2019년	2020년
• 성평등 동화 구연대회 • 4.3여성들의 기억 구술 채록 사업 • 제례시 여성제관 봉무를 위한 사업 • 취약계층 아동 대상 인식개선 사업 '양성 평등 캠프' • 대중매체 모니터링 사업 '모두락'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 세미나 • 문학 작품 속 성차별 내용 글쓰기 사업 등	• '함께하는 발걸음' 공존 로드맵 • 문화예술x 성평등 네트워크in JEJU • 여성 활동가 'cheer up' 양성평등 레벨 업 • 성평등한 마을 지킴이 활동 사업 • 양성평등 서귀포시민 추진단 운영 • 제주 해녀 불 턱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만나다 등

Ⅰ 성평등정책관 이전과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6 성평등한 문화확산 사업의 변화

도민 참여형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실시	•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 및 도민 참여형 행사 운영 – 기념식 위주에서 시청광장을 활용한 도민 참여 행사 추진 – 다문화가정, 청장년층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 보이는 라디오, 청년 토크 콘서트 등
양성평등 진흥 유공자 선정 확대	• 양성평등 디딤돌상 발굴 • 양성평등 유공자 확대 선정 추진
남녀와 세대별 양성평등 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 생애주기별 양성평등 사업 발굴 추진 – 학생(중고생) 대상 성평등 콘서트 운영 – 마을별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성평등 콘서트 운영

Ⅰ 성평등정책관 이전과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7 성평등 인식의 변화

제주도민 성평등 의식 수준 연구 조사	• 성평등 의식 수준은 2016년보다 향상 • 경제자립, 자녀 돌봄 및 직업에 대한 성별고정관념은 2016년보다 강화 * 성역할 인식, 영역별 성평등 실태, 성평등 정책 수요 조사 실시 • 집단별 주기적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와 성평등 감수성 콘텐츠 개발 방안 제시
전국최초로 성평등마을규약 제정 등 성평등한 마을조성: 3개소	• 마을규약 재정비를 통한 여성의 마을 중요사안 의사결정 참여 기반 마련 * 2019년 제주 여민회, 2020년 제주 여성농민회, NGO 협업



2019. 2 ~ 3월	2019. 5 ~ 11월	2019. 6월	2019. 7 ~ 10월	2020년
선진사례 조사·연구	사업추진단 구성 및 운영	성평등마을규약 표준 조항 마련 및 시범마을 확정	마을별 성평등프로그램 진행 및 마을별 규약 검토	성평등한 마을조성 (5개 마을 참여)

Ⅰ 성평등정책관 이전과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8 성평등한 미디어·언어의 변화

생활 속 성 불평등 용어 개선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 문화조성

- 도내 공공기관 대상 행정용어, 홈페이지, 언론보도 시 성불평등 용어 정리
- 제주도청,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언론사 등 40개 기관
- 성불평등 용어 정리 : 성불평등 용어 사용 사례 439건, 40개 용어정리



2019. 10월
생활 속 성불평등 용어 개선 토론회 개최

2020. 3월
2019년 성불평등 용어 조사결과 → 공공기관(부서) 언어 개선 사용 홍보

2020. 5월
성불평등 용어개선 카드뉴스 제작. 홍보

Ⅰ 성평등정책관 이전과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8 성평등한 미디어·언어의 변화

성평등 미디어상 공모 (19.10.10.~10.31.)	공모내용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에 기여한 보도물 *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사회·경제 참여 확대, 여성 안전과 건강증진, 성평등 정책 실행력 강화, 여성 친화환경 조성
	공모대상	도내 신문사 및 방송사
	심사결과	• 제주 cbs, 한라일보사 공동 수상 • 수상작 활용: 성평등 문화 확산 홍보 및 교육자료로 편집. 활용
디지털 미디어 활용 양성평등 크리에이터 공모전 (19.3.25.~8.29.)	공모내용	• 청년층의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 대한 관심 유도 • 온라인 채널 활용 콘텐츠 발굴 및 캠페인을 통해 생활 속 성차별. 성불평등 개선을 위한 홍보 효과 극대화 도모
	공모일정	• 크리에이터 채널 공모 : 2020. 5 ~9월 / 시상 및 발표 : 2020. 10월
	심사결과	2019년 공모 결과 : 하말넘말(heavytalk)등 4개 작품 선정

Ⅱ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추진상황

제주형 양성평등 정책 '더 제주처럼'

제주처럼(2015~2018)

2대전략· 4개 핵심과제· 25개사업

448억원

더 제주처럼 (2019~2022)

7개 정책영역· 27개 시행과제· 41개 세부사업

480억 재정투자

- 제1 단계 추진 성과분석 및 '제주처럼' 후속사업을 제안을 위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전략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더 제주처럼' 기본계획 확정('18.12.28)
- 성평등 정책에 대한 수요, 제주 성평등지수를 반영한 과제 발굴
- '더 제주처럼 2020' 시행계획 확정('19.12.19): 41개 사업, 145억 투자

Ⅲ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상황

여성안전사업 및 여성대표성 제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 2019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 추진: 54개 사업 796억원 투자
-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구성(44명) 및 활동 활성화
- 여성친화도시 도민아이디어 공모(5건) 및 우수 사업 발굴· 지원(11건)
-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안 마련을 위한 성평등마을 컨설팅 지원(5개소)

여성안전사업 집중 추진

-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안심 무인 택배함 서비스 확대(8개소)
- 심야버스 및 택시 안심 귀가서비스 운영(14개 노선 . 5,918건)
- 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확대 설치 및 스마트 관제시스템 도입
- 여성 1인가구 안심 3종세트

여성대표성 제고 및 정책참여 확대

- 도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44.3%)
- 여성공무원 관리직 비율(18.3%)
-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여성임원 비율(20.3%) 로 향상



Ⅳ 코로나 19, 이후 앞으로 더 무엇을?

코로나 19 전지구적 팬데믹 상황

여성의 구조적 취약성이 이미 존재하는
경제활동, 건강 등의 영역에서 차별적 상황 증가

' 텔레그램 성착취방 (n번방) ' 사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과 교육 필요
디지털 성폭력 대응 방안 모색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성폭력예방 교육 등 각종 대면교육 곤란함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비대면 교육 방법 다양화

여성 1인 가구 증가' 돌봄 부담 가중

여성 안전 정책 ' 사업 필요에 따른 정책 발굴로
모두가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필요

Ⅴ 앞으로 더 무엇을?

민관거버넌스활성화

- 성평등협의회 정책수요자 확대 추진
- 성평등 청년네트워크 다변화
- 성평등 커뮤니티 활성화

성인지정책 강화

- 도정 전반 성인지 관점 정책 방향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마련
- 주요 정책의 성인지 관점 통합 관리
-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강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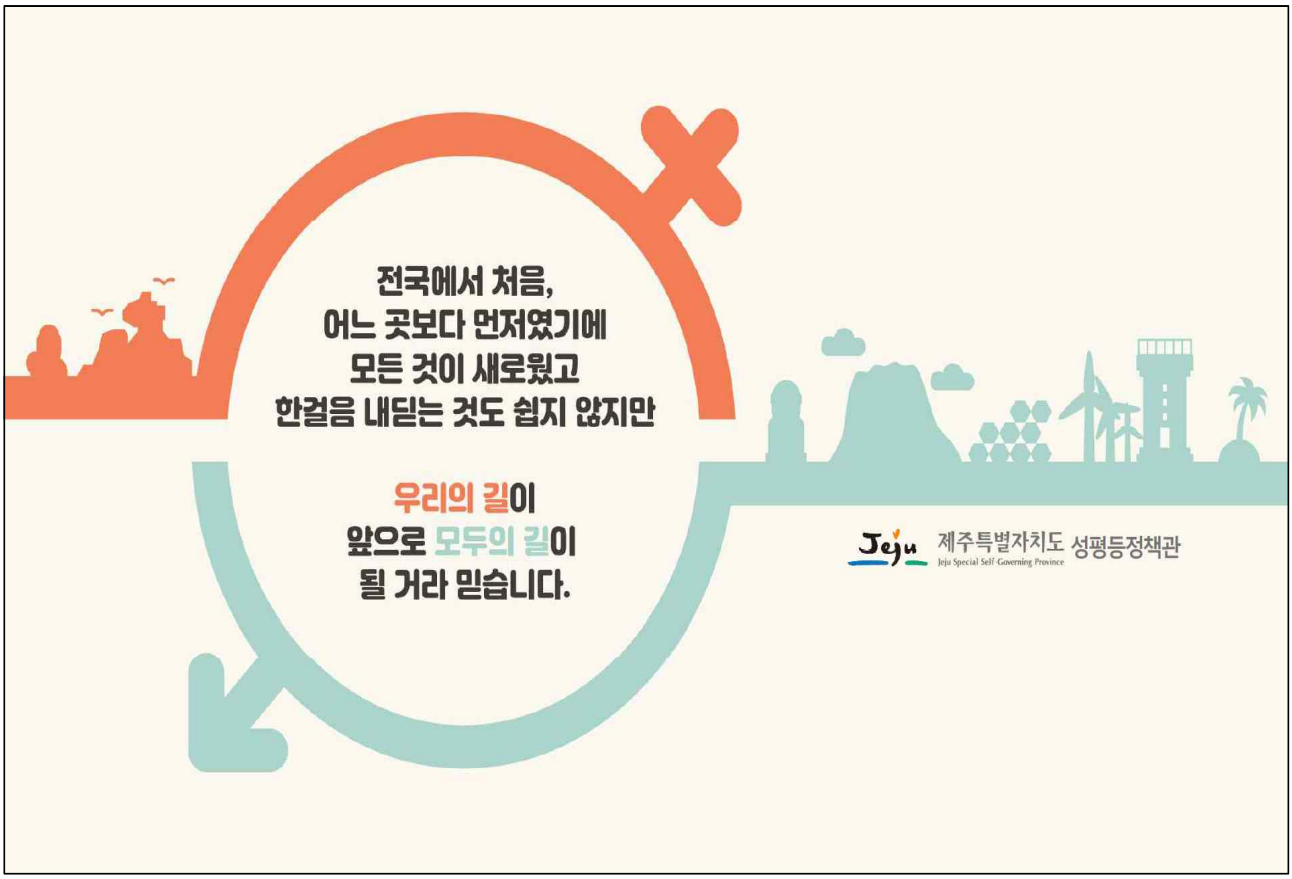
- 제3차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위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
- 지역 여성의 역량강화 및 지위향상을 위한 여성 교류 협력 확대
- 여성친화도시 조성 도민 참여 활성화

V 앞으로 더 무엇을?

지역사회 양성평등 교육 확산	• 제주양성평등 교육센터 기능 강화 및 도민 대상 성평등 교육 강화 • 다양한 형태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관련 활동 • 생활 속 성평등 실천 및 다양한 도민 인식개선 사업 추진
여성 안전· 건강 인프라 구축	• 여성 안전 정책· 사업 확대 • 성인지적 관점의 공공시설물 공간 조성 추진 • 여성 힐링공간 설치 운영 및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디지털 성폭력 등 여성 안전 위협요인 대응 정책 추진 • 성인지 관점의 재난관리(대응) 매뉴얼 분석 및 개발



21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2주년 성과



MEMO

◈ 발표 2 ◈

2020년 성평등 포럼

북경행동강령 선언 25주년, 제주지역 성과와 과제

고 지 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

2020 성평등 포럼 / 2020.8.28(금) 15시 / 제주인권교육센터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북경행동강령 선언 25주년, 제주지역 성과와 과제

발표: 고지영(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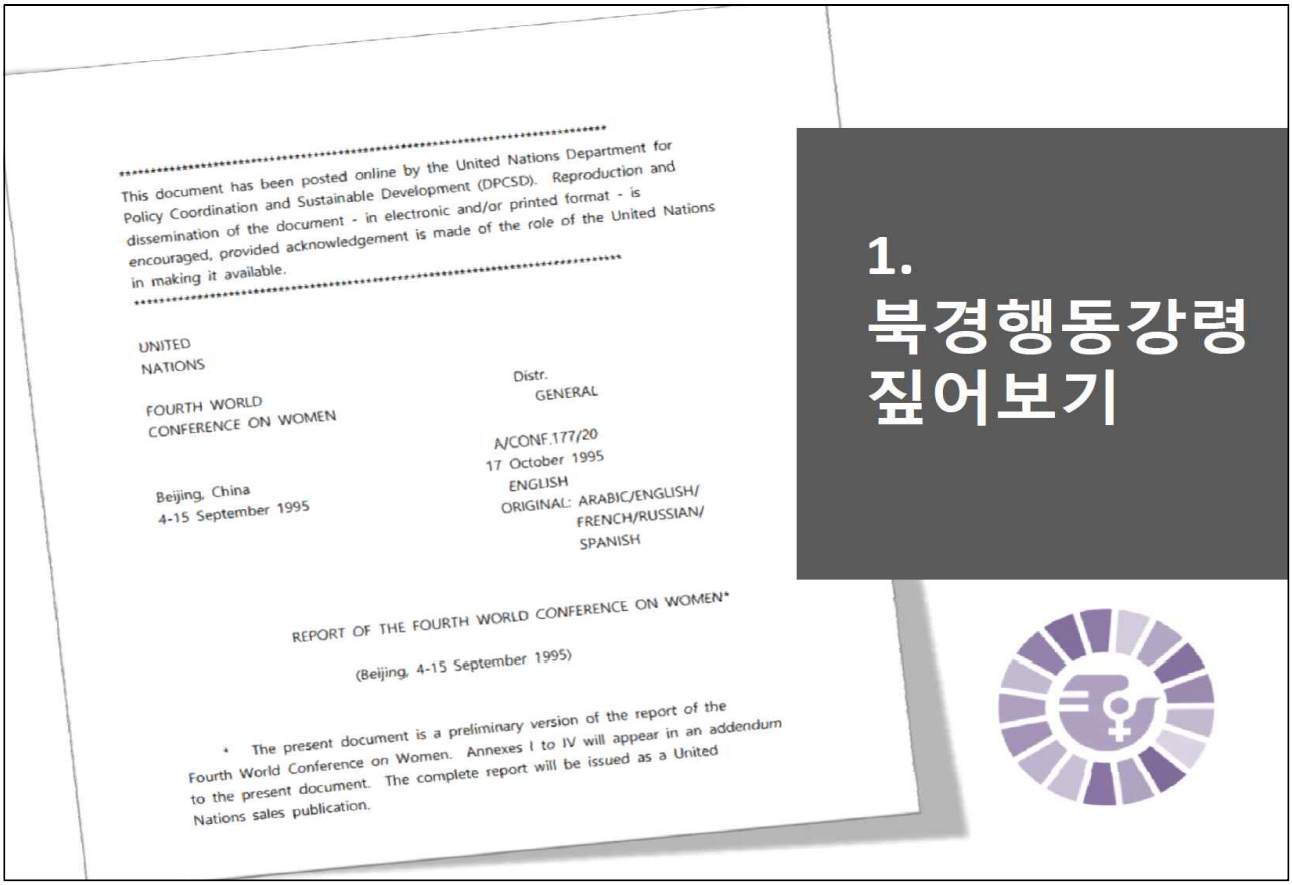
본 자료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TF팀의 공동 작업 결과입니다.
참여자: 고지영 선임연구위원, 강경숙 연구위원,
신승배 연구위원, 이연화 연구위원, 이해웅 연구위원

목 차

1 북경행동강령 짚어 보기

2 제주지역 현황과 성과

3 제주지역 향후 과제



1. 북경행동강령 선언 1995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4차 유엔 여성대회

189개 국, 17,000명
30,000명 활동가 참여

"성평등 &
여성 역량강화"
위한

역대 가장 포괄적인
361개 조항 행동강령 채택

1. 북경행동강령 선언 1995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 위한
12개 영역과 전략 목표 채택



- Women & Poverty -여성과 빈곤
- Education & Training -교육훈련
- Women & Health -여성과 건강
- Violence against Women -여성폭력
- Women & armed conflict -여성과 무력분쟁
- Women & economy -여성과 경제
- Power & decision making -권력과 의사결정
-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advancement of women -여성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 Human rights of women -여성 인권
- Women & the media -여성과 미디어
- Women & the environment -여성과 환경
- The girl child -여아

1. 북경행동강령 선언 1995

모든 정책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전략 공고화

베이징 행동강령 이행을 위해

모든 유엔 활동의

"성 주류화" 의무화

326. The Secretary-General is requested to assume responsibility for coordination of policy within the United N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tform for Action and for the mainstreaming of a system-wide gender perspective in all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mandates of the bodies concerned. The Secretary-General should consider specific measures for ensuring effective coordin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se objectives. To this end, the Secretary-General is invited to establish a high-level post in th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 using existing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o act as the Secretary-General's adviser on gender issues and to help ensure system-wide implementation of the Platform for Action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1. 북경행동강령 선언 1995+25년

CSW64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BEIJING+25: REALIZING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ALL WOMEN AND GIRLS
9-20 March 2020

2020.3월
제64회 유엔여성지위 위원회
북경+25년 점검
17개 선언

POLITICAL DECLARATION

ON THE OCCASION OF THE TWENTY-FIFTH ANNIVERSARY OF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국가는 없다.

각국 정부는 북경행동강령의 완전하고, 효율적이고, 가속화된 이행과 성 주류화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제주지역 현황과 성과

2. 제주지역 현황과 성과

7개 영역 중심으로 검토

교육· 훈련 | 건강 | 경제 | 인권&폭력 | 의사결정 & 제도적 장치





(제주지역 성과 점검, 우수사례 발굴 및 향후 과제 논의를 위한 자문회의 현장 (2020.8.5.)/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제공)

제주 -여성의 교육·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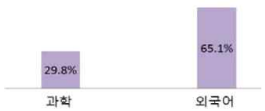
· 교육기회의 동등한 접근성
· 교육자원 및 교육 여건의 평등
·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기회의 평등

성별 대학 진학률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특목고 여학생의 전공(2018)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도민 평균 교육 년수 (2019)
여성 10.9년
남성 12.7년

초·중·고등학교 직위별 교원 비율(2018)



평생교육 기관 여성 참여자 비율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자료집

고등교육 기관의 직위별 여성 교원 비율(2018)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제주 -여성의 교육·훈련

교육기회의 동등한 접근

· 성별 교육기회는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향상
- 2019년 여성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높아짐
· 박사학위 졸업자 중 여성 비율(2018년 27.1%)은 여전히 낮음
· 전공, 진로 선택의 성별 격차 여전히 존재
· 여성 고급 인적자원 양성, 전공과 진로선택의 성 격차 해소 노력 필요

교육 자원 교육 여건

· 초·중등, 고등 교육기관의 여성 교원 수 점진적 증가
· 상위직위일수록 여성 교원 비율은 여전히 낮음
· 여성 채용, 승진의 성평등 향상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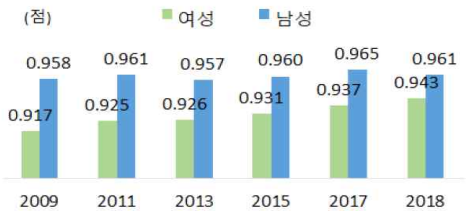
직업훈련 평생교육

· 여성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 인프라 구축·확대
- 평생교육 진흥 조례(2009),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2014),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
· 성별 교육 년수 및 정보화 격차 여전. 고령사회 & 디지털 사회의 성인지적 교육훈련 제도 및 프로그램 혁신 노력 필요

제주 –여성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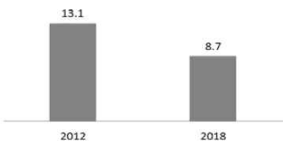
· 보건의료 서비스의 동등한 접근
·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 여성건강 조사연구 및 정보 확산

제주지역 삶의 질 지수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생활, 통증/불편, 불안/우울 =1점 기준)



자료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시스템

병·의원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불만족 비율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사회조사

지역사회 운동시설 접근율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건강통계

도민 수명(2014 기준)

기대수명
여성 85.4세,
남성 79.3세

건강수명
여성 65.2세,
남성 64.7세

자료 : 통계청, 생명표

제주 –여성 건강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

· 10만명 당 보건의료 기관수 : 2007년 102.1개 → 2018년 124.3개
· 제주여성, 병의원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만 감소
· 보건의료 서비스의 성인지적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여성 건강 예방 & 증진

· 여성의 기대수명 및 삶의 질 지수 꾸준히 향상
  - 여성의 임신 출산 관련 보건서비스 확대
    ("아이돌보미 확충 우수기관" 인증(2019, 여성가족부)
  - "여성금연클리닉" 운영(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2008) 등
· 지역사회 운동시설 접근율 높지만 성별 인식 격차 지속
  →보건, 의료, 건강 위한 접근성 강화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기대수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건강 수명 → 조사 연구 강화 필요

여성 건강 조사연구, 정보 확산

· 지역사회 성별 건강 통계, 제주지역 성인지통계 생산 확대 중
· 젠더 관점의 건강 정책 연구 개발 및 기초 통계 확대 필요

제주 –여성 경제 활동

·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제고
· 노동시장 고용 여건 평등
· 일·가정 양립 근로 환경 조성

전국 및 제주지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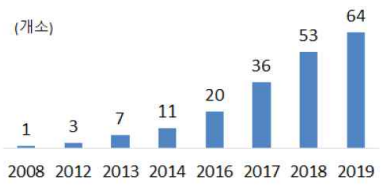
제주지역 임금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남성 대비 비중)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전국 최고 여성 경제활동

제주지역 가족친화인증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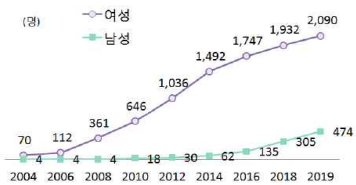
자료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내부자료

제주지역 수눌음돌봄 공동체



(2016년 18개팀->2019년 62개팀)

제주지역 육아휴직 급여 지급 인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제주 –여성 경제 활동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 제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점진적 증가 및 전국 최고 수준 유지
-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 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3개소)
- 지역 특성을 살린 여성 창업 지원: '여성 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2016~) 사업으로 16개 여성 창업팀 지원
- 농어업 여성 경제활동 지원 : 어업인 교육, 신규해녀 정착지원금 지원 등

노동시장의 고용여건 개선

- 여성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지원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단계적 전환,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제주 여성농업인센터 등
- 고용차별 해소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제주여민회, 2018~)
- 성별 임금 격차 등 구조적 성차별 문제 해소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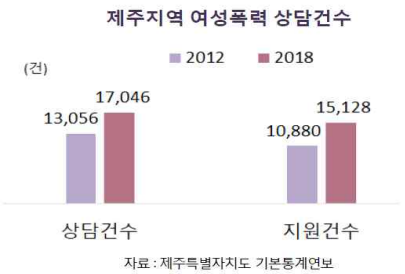
일·가정 양립 근로환경 조성

-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규정 개선 관리감독 강화(2017~)
- 가족친화직장문화 확산을 위한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2016~)
  - 가족친화 인증 기업 증가 : 2008년 1개소 → 2019년 64개소
  -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증가 : 2016년 18개팀 → 2019년 62개팀
- 남녀 육아휴직 이용자 수 증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Jeju Family Friendly Support Center

제주 –여성 인권·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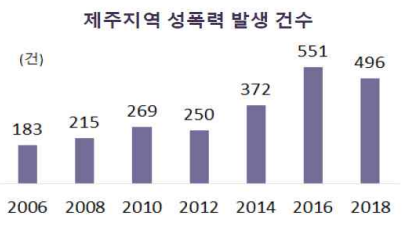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여성 인권·폭력에 대한 교육 및 연구
- 성매매 피해자 지원 및 여성인권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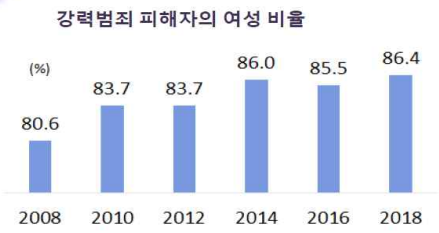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통계연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 인권 보호 증진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 :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제주 –여성 인권·폭력

여성폭력 방지 & 피해자 지원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 상담 건수, 지원 건수 증가, 상담 및 보호시설 증가
- 그럼에도 성폭력 발생 건수, 강력범죄 피해자 여성 비율 지속 증가

여성 인권, 폭력에 대한 교육 & 연구

- 도민 대상 성평등(성인권) 및 폭력예방교육 추진(2015~)
- 전국 최초 지역 내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 지역 내 공공기관(폭력예방교육 의무기관)의 전문 강사에 의한 교육 비중 증가 (2014년 8.2%, 2016년 37.4%)
- 여성 인권폭력 연구 확대 : 안전 취약지역 조사(2017) 등
  -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셉티드), 여성 안전 취약지역 실태 조사 및 CCTV 등 시설 정비, 여성안심택배, 여성 1인가구 안전 시설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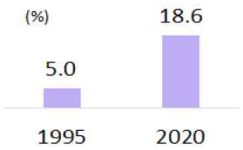
성매매 피해자 지원 & 보호

- 탈 성매매 직업전환 생계비 지원(2007~)
  - 성매매 피해 여성의 탈 업소 촉매제 및 털 성매매 실현의 전환점
  - 생계비 지원 기간동안 검정고시, 아르바이트 등 근로활동 유지, 직업훈련 참여, 새로운 진로 진입 등

제주 –의사결정, 제도적 장치

- 공직 및 지역사회 여성 대표성 강화
-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법, 제도화 강화
- 양성평등정책 및 성 주류화 기반 강화

도의회 여성 의원 비율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총람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도 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주요행정총람

주민자치센터 여성 위원 비율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운영현황



제주도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202.6월)

- 여성 임원 비율 : 20.2%(위촉직)
- 여성 관리자 비율 : 13.6%

제주 –의사결정, 제도적 장치

여성 대표성	· 공직 및 민간 부문 여성 대표성 점진적 확대 - 도의원, 5급 이상 공무원, 위원회 여성위원, 공공기관 임원 등 · 성평등 마을 만들기 : 성평등 마을 규약, 성평등 시범마을 지정(2019~)
법, 제도화	· 도 양성평등기본조례(2015~)(전 여성발전기본조례, 2007) · 제주형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프로젝트 제주처럼(I, II)(2015~2022)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여성정책 특보(2006~2010), 성평등정책관(2018~), 양성평등담당관 제도(2019~) · 협의조정 기구 : 여성특별위원회(2000~2016), 양성평등위원회(2016~)
성주류화 기반 강화	· 법제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조항 신설, 2012), 성별영향평가 조례(2014), 특정성별영향평가(2019~), 성인지 예산 관리 조례(2019~) 등 · 성인지통계 구축 : 1998년부터 격년 발간





3. 제주지역 향후 과제

1. 여성과 교육·훈련

❍ 여성 고급 인적자원 양성 및 전공과 진로의 성별 분리 개선
- 여학생의 이공계 전공 및 진로 선택을 위한 증등 및 대학 진로교육의 성인지적 개선
- 교육과정의 성 고정적인 내용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교사 성인지 교육 강화

❍ 양성평등한 교육자원 확대 및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민·관·학 협력 강화
- 교육관리직의 여성 대표성 제고
- 여성학 관련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민·관·학 성평등 거버넌스 조성 및 활성화

❍ 디지털 사회 제주여성의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인프라 강화 및 프로그램 혁신
- 생애주기별 성인지적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디지털 시대 성별 정보화 격차 해소
- 여성 취·창업 교육훈련 인프라 확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혁신 및 종사자 역량 강화
-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 수단 및 프로그램 강화 : 장애여성, 이주 여성, 고령 여성 등

2. 여성과 건강

❍ 제주여성의 실질적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강화
- 제주여성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의 격차 원인 등 여성 건강 정밀 진단 및 대안 마련
- 생애주기에 맞는 신체적·정서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 고령사회 노년기 여성의 신체적·정서적 지원을 위한 건강증진정책 발굴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여성 건강 지원 정책 개발
- 농어촌 여성 및 해녀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 지역 특성을 고려한 힐링, 치유 등 여성 건강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여아와 여성들의 일상생활 속 운동 접근성 제고 및 심리적·정서적 건강 상담 지원 확대

❍ 지역의 도시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한 여아와 여성 건강 의제 연구 개발
- 소득, 교통, 주거, 일자리 환경들이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 진단 등을 통한 건강 정책 개발
- SDGs를 향한 여아와 여성의 지속가능한 건강정책 연구

3. 여성과 경제

❍ 여성 일자리에 대한 질적 개선과 지역특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청정 환경, 관광지 특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제주형 여성 일자리 정책 연구 개발
- 디지털 및 플랫폼 경제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 혁신적 여성 취·창업 지원 정책 강화
- 경력단절 여성 등의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취업 지원 교육 및 서비스 개선
- 취약 여성 등의 노동시장, 정보, 기술에의 접근성 제공 및 근로 환경 개선

❍ 노동시장의 여성 고용 차별 해소 및 근로환경 개선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성평등 임금공시제 제도화 등을 통한 임금차별 철폐
- 비정규직 여성 노동환경의 성차별 해소 및 근로 복지 향상
- 제주여성의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 정책 연구 개발

❍ 일·가정 양립의 제도와 문화의 안정적 정착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프로그램 개발 강화
-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개선 지원
- 수눌음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사회적 돌봄 문화 확산

4. 여성과 인권·폭력

❍ 여성 폭력예방 교육의 실효성 제고
- 여성폭력예방교육 및 성평등(성인지감수성) 교육의 실효성 제고
- 코로나19 비대면 사회의 교육 콘텐츠 및 교수법 연구 등을 통해 교육 내실화

❍ 여성 폭력 및 인권 보호 관련 조례 개정
- 젠더폭력 변화 양상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보호 조례」 개정
- 디지털 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관련 조항 삽입

❍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한 인권·폭력·안전 대책 지속 강화
- 제주도의 관광산업, 올레길 등 특징을 고려한 안전 정책 개발 강화
- 재난·재해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여성 및 아동의 안전을 위한 성인지적 매뉴얼 개발
- 안전교육 및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를 통해 모두가 안전한 제주사회 구현

❍ 성평등 의식 및 여성 인권 관련 데이터 축적
- 제주지역 성평등 의식 및 여성 인권 관련 정기적 조사

5. 의사 결정 및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 지역과 조직의 여성 리더 양성 및 성평등문화 확산 강화

- 성평등 마을 규약 확산 등 성평등마을 만들기 사업 내실화
- 공공기관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지역사회 여성대표성 강화 방안 마련
-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활성화('20년 9월 개소 예정)

❍ 지역 성 주류화 거버넌스 모델 개발 및 운영

- 기존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의 성평등정책 거버넌스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실행주체와 도민 참여 강화 방안 마련 및 성 주류화 실행 네트워크 구축·운영

❍ 양성평등정책의 성주류화 전략 연계 강화를 추진체계 강화

-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활성화
- 성평등정책관, 예산담당관(회계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원기관 등 성주류화정책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

❍ 성인지적 관점의 제주 여성의 삶 재조명 정책 강화

- 제주4·3, 해녀, 신화, 생태환경 등 지역역사문화영역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적 정책 개발 활성화
- 제주여성 삶 연구 체계화를 위한 `지역여성역사문화연구센터`(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설치 및 운영 활성화

- 감사합니다-

MEMO

◈ 토 론 ◈

2020년 성평등 포럼

좌 장 민무숙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토론1. 장윤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2. 염미경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토론3. 이경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토론4. 김경희 (대전광역시 성인지정책담당관)
토론5. 고은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

2020 성평등포럼 토론문

장윤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여성가족부에서는 1995년 북경행동강령 선언에서 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 등을 위해 채택한 12개 영역과 전략목표에 대해 한국사회의 성평등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본 포럼에서 북경행동강령의 12개 영역에 대한 제주지역의 성과를 다루고, 특히 민선7기 이후 제주의 성 주류화 추진체계의 변화와 2년의 성과에 대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공동주최한 2019년 성평등포럼에 이어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북경행동강령의 7개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지역의 성과는 국가단위에서의 평가와 비교했을 때 지역의 인프라는 일정 정도 갖춰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주의 여성대표성과 관련하여, 2018년 지자체 여성공무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 여성공무원 비중은 평균이 37.9%,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중은 15.6%였습니다. 제주는 여성공무원은 34.5%, 5급 이상은 16.6%로 전국 지자체 평균비중보다는 1.0%p 높게 나타났습니다. 발표문에 따르면 2020년에는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중이 19.8%로 나타났으며, 2018년 통계보다 3.2%p 증가하였습니다.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인력의 증가와, 특히 관리직에서의 여성 비중의 증가는 조직의 성평등 역량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본원의 2020년 관련 연구 추진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경행동강령 이행과 관련하여 제주지역에서 주목할 사항은 단연 성 주류화 운영체계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제주도청과 함께 성평등포럼을 공동 주최하였고,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사업으로 추진한 “지방분권과 성평등정책기반 조성방안” 연구에서 지방자치분권 과정에서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새로운 성 주류화 추진체계를 구축한 사례로 제주 지역사례를 연구하였습니다.

제주지역 사례는 발표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제주와 같은 성 주류화를 총괄하는 조직과 인력의 구축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성 주류화를 추동할 수 있겠

는가에 있습니다. 성주류화는 그간 제도와 인프라 구축만으로도 일정 정도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평가하기도 하나, 또 한편에서는 우리사회의 성평등 제고에 성 주류화 제도가 얼마만큼 기여하였는지 체감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에 기존의 제도 중심의 성 주류화 전략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이에 여러 지자체에서는 시민단체 활동가나 젠더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고민과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 이주민 등 다양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주도청의 성평등정책관에서 지난 2년간 실행한 사업 운영성과에서는 먼저, 도정의 성 주류화와 관련하여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 및 담당을 지정하여 각 부서별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한 성평등한 정책개선 사례 뿐 아니라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나 초기 제도설계와의 변화과정 등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타 기관에서도 양성평등담당관 및 담당의 지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명목상의 성 주류화 운영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에 운영과정의 보다 진솔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4개 기관이 참여하는 성평등협의회 구축과 운영 과정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성평등협의회가 ‘젠더거버넌스’로 자리매김하여 제주의 주요 성평등이슈를 다루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협의회의 운영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제주의 성별영향평가 운영 대상기관이 지방정부 외에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된 것 또한 매우 고무적입니다. 정책의 개선효과를 주민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선의 정책서비스 담당기관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성별영평가 대상기관의 확대는 이를 위한 주요 변화라고 평가됩니다.

네 번째는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의 설치와 운영입니다. 이제 성평등에 대한 요구는 도정에서 뿐 아니라 각 지역과 마을단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꼭 필요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센터의 설치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능과 수요에 적합한 인력과 예산, 시설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은 매

우 중요합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는 여성의 안전에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사회의 성평등 문화확산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미디어상 공모나 디지털미디어 활용 양성평등 크리에이터 공모전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나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상의 성 불평등 용어 개선사업 등은 일상을 성평등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사례로 여겨집니다.

제주지역의 성 주류화 추진 현황에 대해 2019년에 이어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주의 성 주류화 사례가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도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 성평등 이슈에 따른 지역 성평등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

염미경(제주대학교 교수)

1995년 세계 189개국이 참가한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유엔세계여성대회(북경여성대회)에서 성평등을 위한 핵심적 전략으로 성주류화(GM: Gender Mainstreaming)가 채택되고 '북경행동강령'이 공식 선언된 이후, 세계 도처 각국은 물론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평등정책의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고 성평등정책 기반이 확충되는가하면,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양성평등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할 가능성을 높여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두 분 발표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지역도 여러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민선7기에 들어와 양성평등기본조례 제정과 성평등정책관 조직 신설 등 등 양성평등 추진체계 기반의 구축과 그 성과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주에서 개최한 성인지예산포럼 세미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평등정책관 조직 신설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델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성평등정책관은 정책 주관부서이고 집행부서는 실, 국인데 잘 운영될 수도 있지만 부서 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적잖았는데, 비교적 잘 걸어온 것 같습니다. 당시 포럼에서 논의된 것들 가운데 '성주류화 삼각다리(관료-전문가-여성NGO)의 협력'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성인지적 정책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있었는데, 오늘 성평등정책관 이전과 이후 변화에 대한 발표내용에서, 특히 생활체감형 제주형 양성평등정책으로서 '더 제주처럼',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제주지역 3개 마을의 성평등마을규약 제정 등에서 볼 때 첫째,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와 담당기구의 강화;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와 여성정책연구기관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유기적 관계 형성; 셋째, 다양한 교육과 여성단체를 비롯해 지역의 사회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성인지력 확산 측면에서 여러 활동을 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무원들의 성인지적 감수성은 높아졌을까요? 성주류화의 이름으로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을

주요 요소로 하여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어왔으나 정작 ‘무엇을 어떻게 통합했는지’를 소리높여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경우 성주류화의 도구로 정책기구 설치, 성별분리통계,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으로 수행되어왔고, 성주류화를 단순히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나 성인지 관점의 정책평가나 분석과 동일시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북경행동강령’에서 젠더와 성주류화가 전면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성주류화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를 통해 성평등이 어떻게 가능한지 등 분명한 합의는 도출하지 않았기에 확산과정에서 성주류화가 정치적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롬바드와 마이어, 벌루 등)은 성주류화 정의를 ‘공허한 기표’라고 말하고 성주류화가 정책의 절차적 변화에 초점을 두지만 기존 질서의 변화나 성평등 전망 자체를 이해하는 문제에는 그다지 역점 두지 않는다고, 또한 성주류화가 행정기구의 절차적 과정과 도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단순한 행정절차로 편입되거나 기존 질서에 여성을 끼워 넣을 뿐이라고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는 성주류화가 젠더의 권력관계를 놓치고 단순한 차이만 해결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면 기존의 젠더 위계구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의 성주류화 성과를 평가한다면, 그 성과와 과제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주지역의 기존 질서의 변화를 획기적으로 가져왔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주류화가 목표하는 변화는 장기적인 목표이므로 이러한 장기적 과정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주류화의 비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평등에 대한 청사진의 공유가 없으면 성주류화는 정책도구 사용에만 머물거나 성평등 목표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일반적으로 정책은 한 국가나 지역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며, 성주류화는 정책의 영역에 도입되는 것이므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 평등 기반 하에 경제적 분배 및 문화적 인정, 정치권력에서 성차별이나 폄하 없는 성평등사회로 사회구조 혹은 지역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8년 여성친화도시 정책 도민 아이디어 공모로 ‘성평등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 만들기'가 최우수제안으로 선정되어 지난해부터 마을운영의 지침이 되는 '마을규약'을 성평등 관점으로 바꾸는 운동이 확산되었으며, 그렇게 하여 전국 최초로 제주서 '성평등마을'이 탄생하였습니다. 성평등 마을규약 운동은 여성들에게 마을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나눠주는 것을 넘어 남녀노소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로운 마을을 만들자는 약속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만합니다.

두 분 발표자께서 향후 과제로 제시한 내용은 성주류화가 지난한 과정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020 성평등포럼 자리가 성주류화를 성평등전략을 넘어서 최종 목표는 성평등 증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 그리고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두 분 발표자가 제시한 향후 성주류화를 위한 과제들을 두 기관을 비롯해 도의회와 여성단체 등 여러 주체들이 공유하고, 성주류화 전략과 도구들을 법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프레임 속에서 성평등 요구를 담아나가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정책과정이 입안부터 평가에 이르는 긴 과정이라고 볼 때, 정책의 행위자가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평가를 수행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전문가나 도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주류화는 단지 정책 입안자나 관련자들을 통해 정책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습관과 의식을 변화시켜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경행동강령' 선언 25년이 되는 지금도 성별임금격차 1위가 한국이며, 여성이 82일 더 일해야 남성과 임금이 같아집니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이 1년 일한 임금과 같은 임금을 받기 위해 1년을 일하고도 추가로 82일 동안 무급으로 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4.6%, OECD 부동의 1위이며, 같은 학력 가져도 남녀 평균임금 격차는 '2000만원'이라는 최근 발표도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 '증권사 성별 임금격차 여전 … 여성 급여는 남성의 57% 수준', '증권사 평균 연봉 2억 원 시대가 멀지 않았지만 성별 임금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경제위기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충격이 남성보다는 여성, 특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장 하층부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각종 지표와 설문조사 등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노동자 모집·채용·임금 등에서 성

별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정책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위기로 여성의 고용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성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노동환경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근거해 지난 10여 년 간 경제활동참가, 고용과 실업 등의 변화를 보면,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남녀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고 증가속도 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업자 수 증가율이 남성이 7.3%인데 반해 여성은 40%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지만 취업과 실업상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여성의 고용이 경제환경 변화에 여전히 취약하다는 현실을 시사해줍니다. 이것도 연령대별, 고용형태별, 사업체규모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에 여성,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발판으로 지난 8월 4일 그 산하에 '여성·청년·비정규직위원회'를 출범시킨 배경이기도 하고….

이 같은 점은 물론, 발표문의 향후 과제 '3. 여성과 경제' 부분에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제주지역의 경우 노동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문제점 파악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조례안 발의가 필요하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주류화는 '정책 입안과 관련된 행위자가 성평등 관점을 모든 수준 및 모든 단계에서 모든 정책에 통합할 수 있도록 정책과정을 조직화하고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평가하는 것'인 동시에, 제주의 성평등마을규약 운동처럼 법적·경제적·문화적·정치적 프레임을 모두 공유하는 지역구조의 변화, 성평등사회를 목표로 나아가야 하는 대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북경행동강령 선언 25주년, 성평등정책관실 2주년 토론문

이경선 (제주여민회 상임대표)

1995년 베이징 3차 세계여성대회는 대회에 참가했던 제주여민회 선배로부터 전설처럼 전해들었다. 그 곳에 참가한 NGO들의 그룹별 토론에 대한 열기와 규모에 대해서 들으며, 10년 후 제4차 세계여성대회가 열리면 같이 가자고 하였지만 그 이후로 그런 대규모의 세계여성대회는 열리지 않았다.

제주여민회는 여성의 권익향상과 여성인권, 성평등사회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였기에, 사업이나 활동에 있어서 북경행동강령을 늘 염두에 두었다. 제주여민회가 특히 집중한 것은 여성인권, 권력과 의사결정, 여성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었다.

여성인권영역은 여성상담소(1995년)를 운영하며 성폭력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였다. '바람직한 학교 성교육을 위한 토론회(1996)'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교육 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후 초등학교 양호교사 성교육 및 성상담 워크숍(1997), 중학교 교사 성교육 워크숍(1998), 고등학교 교사 성교육 워크숍(1999), 성교육강사 개발프로그램 교육(2000), 양성평등 문화를 위한 남성성인지 교육(2001)도 진행하였다.

권력과 의사결정, 여성발전을 위한 제도적 영역은 연결된 활동들이다. 1994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제주여민회는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목표사업으로 정하고 여러 활동을 전개하였다. 지방자치교실을 운영(1994)하고 1995년 지방선거에 각 후보들에게 여성정책공약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후 매 선거 때 마다 후보들을 대상으로 여성정책공약 제안활동을 하였다.

2000년 초반에 제주도는 성주류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구 및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2004년 제주도지사 보궐 선거 때 제주여민회는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여성정책연구기관 설립, 성평등담당관 도입' 세가지 정책을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이 정책제안이 받아들여져 여성정책연구센터(2005)가 생기고, 성평등당당관은 여성특별보좌관(2006)으로 수용되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조례(2007)가 제정되었다. 이후에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조례로 전면개정되고, 여성정책연구센터는 여성가족연구원으로 재탄생했다. 그리고 십수년을 주장했던 성평등추진체계는 지금의 성평등정책관실로 탄생되었다.

그 외에도 2000년 초반부터 제주도의 정책과 예산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하는 활동을 하였다. 제주도 여성정책 및 예산의 성인지적 분석(2003), 제주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금 현황 비교분석(2004), 제주도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2005) 활동들을 진행하여 성주류화 기반조성과 제도화에 기여하였다. 이 시기는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이 없었기에 제주여민회가 NGO로서 이 역할을 수행했다.

최근에는 여성의 대표성에 더욱 천착하며 활동하고 있다. 마을에서 여성의 공적 지위는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마을로 들어가서 부녀회장과 사무장을 인터뷰한 사례로 '마을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2018)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물을 토대로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마련과 공론화 사업'(2019)을 통해 마을의 부녀회원들과 함께 성평등마을규약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
이런 활동이력이 있기에 오늘 이 토론회는 더욱 감회가 깊다

북경행동강령 선언 25주년 제주지역 성과 부분에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여성정책연구기관의 설립은 주요한 성과이다. 의사결정, 제도적 장치 영역에 제주발전연구원 내의 여성정책연구센터(2005), 여성가족정책연구원(2014)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성평등정책관실의 성과에 대하여

성평등정책관실이 신설되어 2년째인데 성평등정책관실의 정체성을 명확히 가져나가려는 노력이 보인다. 특히 양성평등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양성평등기금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일반예산과 차별성이 없는 사업이거나 양성평등기금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에 다수 지원이 되어 왔었다. 2019년, 2020년 선정된 사업들은 양성평등기금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잘 운용되고 있다.
생활 속 불평등 용어개선 사업이나 성평등 미디어 공모상을 시상하며 미디어를 활용한 성평등 문화확산도 눈에 띈다. 일반대중에 대한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언론 및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역 공공기관과 언론 등이 참여하는 성평등정책협의회 구성과 청년들과 함께하는 성평등 사업 또한 성평등거버넌스 확대를 위해서 좋은 방안이다. 그런데 제주성평등협의회 운영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후의 과제에 대하여

○ 초,중,고 성평등교육 실시

현재 진행하는 폭력예방교육, 도민대상의 성평등 교육은 대상이 성인이다. 성인이 되어서 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것 보다 어렸을 때부터 성평등 교육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효과성이 있다. 디지털 성 착취물을 거래하는 'n번방'의 주요 공모자 중 10대 남성들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며 단지 일부의 일탈로만 보아 넘길 수는 없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성별고정관념을 강화시키고 보건 중심의 성교육을 진행하는 현행 '학교 성교육 표준안' 대신 인권과 성평등에 기반한 섹슈얼리티 교육을 진행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사들의 성인지 교육 또한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초,중,고 교육은 교육청 소관이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성평등정책관실이 협력하여 제주도 교육현장에도 성인지관점의 교육이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 9월에 개소하는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에서 청소년 대상의 성평등, 성교육에 대한 고민도 함께 했으면 한다.

○ 여성힐링센터 설치

제주여성의 기대수명이 85.4세에 비해 건강수명이 65.2세로 현저히 격차가 있다. 여성이 건강하지 못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성평등정책중기계획인 '더 제주처럼'(2019-2022)에는 여성안전과 건강증진영역에 여성힐링공간 설치운영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에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밑그림을 그리고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관들의 연계노력

제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전국평균에 비해 10%이상 높다. 하지만 비정규직비율 또한 높다. 공공기관은 직장내 고충상담센터 등이 구성되어 있어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및 괴롭힘 등의 고충에 대해서 상담할 창구가 있다. 하지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제주에는 2018년에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제주여민회 고용평등상담실이 운영되고 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채용 성차별에서부터 성별임금차별, 직장내 성차별, 성희롱, 비정규직 차별, 괴롭힘등 성차별적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직장내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상담을 받고 싶어도 정보의 부족으로 이러한 기관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성평등정책관실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 부분에서 고용평등상담실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시길 바란다.

북경행동강령 12개 이슈 중에서 제주에서 성과로 거론되지 않은 이슈가 여성과 빈곤, 여성과 무력분쟁, 여성과 환경이다. 여성과 무력분쟁과 관련해서는 4.3을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 제주지역의 여성운동 단체로서 4.3과 여성에 대한 연구는 숙원과제이기도 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2017년 4.3 70주년을 맞으며 '4.3과 여성 구술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성과물로 내놓지는 않았지만 3년 째인 올해 어떤 형태로 공유할지 논의 중에 있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제주’를 위하여!

김경희(대전시 성인지정책담당관)

1. 생활체감형 성평등정책 사업 확대

*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조건으로 ‘성평등’문제에 주목하고 있고, 여성들의 역량을 높이고 동등한 사회참여를 보장하면서 성평등을 구조화하고 제도화 해 나가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되어 있음
* 제주도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성평등정책관’을 신설('18.08.28)하고, 성평등기획, 성인지정책, 여성친화도시 등 3개팀을 운영하며 양성평등기본계획에 따른 성평등 목표와 성평등 사회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성평등 지표 관리를 성과있게 해오고 있음
* 지역성평등지수에 따른 제주의 성평등 수준은 2017년 상위권 진입 이후 줄곧 상위권을 유지. 성평등한 사회참여(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영역은 상위권, 여성의 인권・복지(복지, 보건, 안전) 영역은 중상위권, 성평등 의식・문화(가족, 문화, 정보) 영역은 중하위권으로 분류. 2013년과 비교해서 성평등 수준과 순위가 모두 개선되었음
* 전문가를 영입하여 성주류화 제도의 내실화, 도정 전반에 성평등 정책 확대기반 마련, 성평등 추진체계 정비 등 성인지정책 업무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한 것은 성과이나, 부족한 인력으로 성평등 업무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중앙부처와의 업무 연계성도 부족하고 한계가 있음
*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거나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젠더 &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거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정책, 성인지정책, 여성가족정책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려면 사업부서로서의 기능보완이 필요
*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정책개발에 집중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돌봄의 사회화, 일・생활 균형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통합적 정책을 추진하여 교육, 사업으로 연계해 나가야 함
* 여성, 가족, 청소년, 청년 등 초저출생의 고착화와 인구, 가족과 가구변화에 따른 사회동향에 적극 대처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돌봄을 지원하는 부서를 통합

하고, 여성고용·차별개선 사업에 힘써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돌봄문화 전환에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야 함

*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관련 시설이 여성정책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역량을 강화시키는 공간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있음. 각 지자체별로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공유공간'이 마련되는 추세이므로 네트워크, 정보, 보육, 교육, 문화, 취업, 창업, 건강 등이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을 새롭게 기획하고 시민참여형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정책 전환 필요

2.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 일상에서의 성평등 문화 정착 필요성과 중요성은 지속 제기
* 성평등 의식 제고와 문화 확산에 대한 장기적 전망과 추진체계의 부재는 제대로 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함
* 성평등 교육은 젠더폭력 등 다양한 젠더갈등의 예방차원에서 중요하며, 전 세대, 전 계층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나 성평등교육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 않음
* 성평등 교육, 지역여성 네트워크 형성과 확산,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실행을 위한 지역 거점기관 필요
* 제주도에서 성평등 교육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양성평등교육센터'를 설치하는 일은 환영할 만함
* 성평등 교육과 문화확산 사업은 지역여성단체와 민관협업 방식으로 진행
* 교육을 통한 인식변화, 이해의 폭을 넓이는 것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의 장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활동으로 확장해야...
* 성평등 교육은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적합한 교육콘텐츠와 교육방법론, 교육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역량기준, 교육효과성 측정도구 등 교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연구개발 영역은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못함
* 지역여성정책기관이 운영하는 교육팀이나 사업팀 업무와 협업하여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방식 도입
* 성평등 가치가 무엇인지 외치는 일방향식, 주입식 교육이 여전함 ⇨ 상호작용하는 교육, 효과를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
* 지역별 성평등 교육 체계를 갖추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기관별, 연령별, 세대별 등 성평등 교육현황 전방에 대해 파악(성평등 교육기관, 교육내용, 시수, 방법, 참여인원)

* 양성평등 컨텐츠를 지역내 교육·문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강사와 퍼실리테이터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
* 생애주기를 고려한 양성평등교육실시
* 젠더갈등 확산, 혐오, 성별갈등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 성평등 이슈와 남성의 돌봄참여에 관심있는 남성들의 활동영역 확대지원
* 여성활동가들에 대한 쉼과 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 프로그램이나 지원사업 방식이 아니라, 활동가의 성장이나 활동과정에 대한 지원 우선(기획력 향상, 사람들과 관계 형성, 여성주의 활동 촉진 가능하도록 조건없는 지원)
* 지역활동의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는 멘토나 상담가의 수시 컨설팅(서로 지치고 힘들 때 격려와 지지 할 수 있는 활동가들 간의 네트워크 마련
* 풀뿌리 여성조직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
* 스스로 기획하는 교육, 풀뿌리 여성주의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잘 기획된 전국이나 해외 연수 기회 제공

3. '더 성평등한 제주'를 위하여!

* 고용과 지위상승, 다양한 영역에의 대표성을 높여내는 등 성평등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삶의 양태를 규정하는 문화의 변화는 지체 현상
* 여성의 사회참여는 이루어졌지만 남성들의 돌봄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일상에서의 성평등 문화가 확산되지 않는 문제가 가장 심각
* 여성의 가정 내 독박돌봄, 돌봄노동 현장이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 돌봄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신 등 돌봄노동에 대한 한계 점검해야.....돌봄을 양질의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돌봄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과 연결
* 평등은 희망이자 지향이지 현실일 수 없음
* 사적영역에서 남성의 노동이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전면에 등장하기 전에는 '평등논쟁'이 의미없음
* 평등개념은 개인의 고유함에 근거를 둔 가치이므로 평등은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과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 그러나 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평등'은 언제나 논쟁적이고 경합적일 수 밖에 없음
* 성별고정관념, 성차별적 표현, 성에 대한 비하와 혐오 등 세대와 계층을 교차하는 젠더갈등을 줄여 나가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의 실질적 지원 확대
* 더불어 행복하기 위한 대열에 여성과 남성이 따로 일 수 없음.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함께 행복하고 평등한 제주 만들기에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함

기본에 충실한 제주 성평등정책이 성평등한 제주사회를 만든다

고은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 ‘성평등한 제주사회’ 구축을 위한 제주도의 2년간의 노력에 감사함

먼저 성평등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행정부지사 직속의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하고, 2년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주신 제주도와 담당 공무원,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함을 전달함. 다른 지자체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가게 되었다는 것에 부담감이 많았을 텐데도, 역할수행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함. 그럼에도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내실 있게 다음 단계로 나가기를 기대하고, 요청드림

○ 추진체계는 구축되었으나, ‘실제 제주도의 관심 정도는 어떠한가’에 대한 점검 필요

「성평등정책관」신설로 도정 전반 영역에 성평등 관점 확산을 위한 정책 실행기반이 구축되었다고 보임. 하지만 이에 비례한 실제 제주도의 관심 정도는 어떠한지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임. 지자체의 관심도와 관련된 단적인 예로 2019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위원회 참석률은 매우 저조했다고 알고 있음. 아직 도내에서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인지 및 수용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만큼, 관련 위원회/협의회 등의 활발한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임. 단지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만이 아닌 실질적인 참여가 중요한 시기임. ‘지속가능한 성평등 제주사회’ 구축을 위한 민선7기 제주도정의 실질적인 관심이 요구됨

더불어 「성평등정책관」의 조직체계와 구성이 필수적인 성평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단지 ‘설치가 되었다’고 추진체계가 구축되었다고 말할 수 없음. ‘타당하고, 적절한 운영이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제주도민의 체감도는 어떠한가’에 대한 점검 필요

현재 시점에서 2년간 추진된 사업에 대한 제주도민의 체감도는 어떠한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관련 정책과 사업의 실행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잘 전달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함. 물론 2년간의 성과가 바로 드러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그럼에도 도민이 해당 정책과 사업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평가정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함

○ 기본에 충실한 정책/사업이 성평등한 제주사회 구축에 일조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낯설고, 어렵게 받아들여짐. 이러한 상황은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관련 정책과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이를 수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식개선이 더디게 이루어지거나 도민의 체감도가 낮은 것에 대해 의구심 등을 가질 수 있음. 하지만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그것이 ‘우리만의 리그’가 아닌, ‘모두의 리그’가 될 수 있어야 함. 현재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단위 중앙사업에 대해서도 제주도민들의 인식과 체감도가 높다고 판단되지 않음. 그런 만큼 ‘제주형’이라는 분리된 체계가 적절한지에 대한 고려도 해볼 수 있을 것임. 물론 이때 ‘제주형’은 제주의 특성과 정서 등이 적절히 반영된 것이어야 함

○ 실질적인 성평등 제주사회가 실현될 때까지 한 단계씩 도약해야 함

앞으로 실질적인 성평등 제주사회가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한 단계씩 도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그때까지 제주도와 관련 기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리며,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역할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MEMO

MEMO

MEMO